

시작하는 자연 관찰 일기 메뉴얼

요즘 환경을 살리는 것에 관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한다. 환경은 우리 몸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을 지탱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환경은 바로 그걸 제공한다. 어떤 장소는 감성을 되찾게 해주는 전체 환경의 일부이다. 우리가 향수병을 앓으며 그리워하는 곳들, 우리가 떠올리는 곳들, 그것은 늘 우리 머릿속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으며 우리가 종종 우리가 있는 현재와 견주어 보곤하는 환경, 바로 소리와 냄새와 풍경들이다.
- 앨런 거소우

=====자연 관찰 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1. 자연 관찰 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할 일

1) 자연 탐사 시작하기 (주변에 관심 갖기)

- 펜과 종이를 들고 아래의 질문을 던진 뒤 주변의 나뭇가지, 담쟁이 덩굴 등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려본다.

“지금 야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특별한 계절, 바로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특별한 곳에서.”

2) 그린 것을 글로 써본다.



<가족과 함께 집 근처의 공원에 피크닉을 나갔다. 산책길을 걷다 보니 바닥에 도토리가 보였다. 근방에 바로 도토리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도토리 몇 알과 솔방울을 주어다가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모양을 그림으로 남겼다. 도토리에는 벌레가 파고들어간 구멍이 보였다. 2016. 10. 01>

2. 자연 관찰 일기란 무엇일까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관찰하고, 이해하고, 느낀 것들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일. 기록의 방식은 녹음, 신문 스크랩, 등 다양하며 일부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 자연 관찰 일기의 유익성

1)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이 생긴다

- 주변의 자연세계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상을 기록하게 됨

ex) 산호초의 생성원리 : 멀리서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 산호초는 산호충들이 극도로 연약한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위에서 이것저것 끌어모은 퇴적물로 이루어진 석회암 이다

2)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 자연관찰 일기를 쓰는 것은 관찰자가 지식과 체험을 결합하도록 자극함으로써 혼자 배우는 일을 촉진한다. 암, 물리학과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바위, 화산, 지렁이 등 바깥세계의 모든것을 탐구하며 결합한다.

4. 자연 관찰 일기의 다양한 활용 용도

1) 집 뒷뜰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의 순수한 관찰: 자신의 집 뒷뜰에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고 관찰한다. 이 자연의 산물이 바로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기록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되고, 개인적인 성장이 된다.

2) 참고용으로 쓰이는 습작들 : 야생화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현장일기를 계속 써가면서, 작업실로 가져와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한다. 동물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할 때 자세를 포착하는데 유용하다. 나중에 완결적인 시나 수필, 데생이나 그림으로 세련되게 탄생한다.

3) 새로운 곳을 알아 간다 : 여행할때, 집 주변 에서 대상 자체와 그것들이 발견되는 환경 등 여러가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내가 방문한 곳들, 내가 본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4) 글과 시각적인 것을 결합하는 연습 : 스케치와 글쓰기를 결합하면 이야기에 한 차원이 더 보태진다. 걸로 드러나는 외관과 사물의 속성을 세세하게 눈으로 지각하고 손으로 기록하다보면 관찰 대상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5) 과학 공부용으로 활용 : 현재 일어나는 관찰과 생각을 지나간 일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과 비교하며 읽어본다. 수많은 계절의 변화 속에 새겨진 자신과 자연 세계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6) 생물학 연구 프로젝트 : 학교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관찰한 것들에 대해 일주일간 일기를 스도록 한다. 그렇게 쓴 일기에서 뽑은 것들을 교내에 공개하여 돌려볼 수 있게 한다. 각기 다른 결과물을 비교해보고 분석하는 학습 효과를 유도한다.

5. 자연 관찰 일기의 표현 방식

- 1) 글쓰기를 활용하라
- 2) 보이는 것을 그리며 초점을 맞추라

6. 자연 관찰 일기의 약속

- 1) 그린것을 평가하지 않는다. 관찰자는 화가가 아니라 본 것을 꾸밈없이 표현하는 과학자일 뿐이다
- 2) 자연관찰 일기는 주로 혼자서 배워가는 개인적인 과정이다. 혼자서 그려도 좋고, 사람에 따라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무엇으로 보이는가? 이것은 먹을 시기를 놓쳐버린 대봉감이다. 왼쪽 감은 진짜 감과는 색이 다르다. 썩은 부분을 표현하던 붓펜 색이 좀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서 똑같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표현하고 몰입하는 것. 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7. 일기 쓰기 전 준비하기

1)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시간을 내자

- 속도를 늦추고, 관찰하며, 하루하루를 최대한 음미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한다. 오늘날처럼 빠른 시대에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10분이 됐건, 한 시간이 됐건, 일기를 씀으로 인해 우리가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삶을 반성할 시간을 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 장소에 대한 개인의 감각 능력을 개발하라

- 여러장소를 돌아다니기 전에 내 주변의 장소에 자주 방문하여 익숙하게 만든다.

꾸준히 방문하면서 그곳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곳에서 사람들 곁에 어떤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곳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자연 관찰 일기 쓰기를 시작하자=====

1. 자연관찰 일기 준비물

- : 펜, 연필, 도화지, 그림판(딱딱한 것), 채색도구(수채물감, 수채색연필 등)
- 자연 관찰 일기 쓰기의 도구는 단순하게 준비한다. 외부에서 서서 그리거나, 쪼그려 앉아 그리는 등 다양한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량의 휴대용 물품들이 편리하다.
- 자신이 좋아하는 특성의 펜이나 연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자연을 묘사하는 데는 도구의 제한은 없다.

2. 일기의 첫장

: 그림을 그리기 전 아래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림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다양한 그림일기 첫 장들- 자연관찰 일기 첫번째 모임 2016. 10. 08>

1) 작성자의 이름

2) 날짜 : 그 해를 떠올릴 수 있게 계절과 달을 써넣는다
봄에 바깥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겨울이라면?

3) **장소** : 어느지방에 사는가? 마을이나 고향에 대한 느낌을 갖기 위해 사는 곳들을 비교해 본다.

내가 사는 이 곳은 친척이나 친구가 사는 곳과 얼마나 비슷한가? 여행할 때 봐서나 사진에서 본 다른 곳들과는 얼마나 다른가?

4) **시간** : 이른 오후, 늦은 오전 등 간단하게 시간을 표현한다.

5) **날씨** : 날씨는 살아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식물들은 낮이 긴 시기에만 꽃을 피우고, 또 어떤 식물들은 낮이 짧은 시기에만 꽃을 피운다.

6) **첫인상** : 문 밖을 나서면서 잠시 적응을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귀를 기울이고 들리는 것을 글로 써본다. 내가 관찰하고 그릴 대상들에 자연스럽게 반응 할 수 있게 된다.

3. 그림을 그리기 위한 관찰법

1) **지상관찰** : 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개체들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면 그 곳에서 나뭇잎, 곤충, 꽃, 바위, 혹은 지렁이 등을 손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2) **눈높이 관찰** : 자유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그린다. 특정한 잎사귀들, 키 큰 식물들, 관목들, 낮은 곳의 덩치들, 수면 위 곤충들, 새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3) **머리 위 관찰** : 위를 올려다보자. 낙엽수이건 상록수이건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싶은 나무를 선택한다. 하늘은 쉬지 않고 바뀌는 볼거리로 가득하다. 눈에 들어오는 색깔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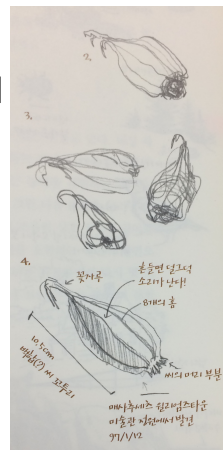
4) **전체적인 풍경 관찰** : 풍경을 단순한 외형에 따라 구분 지은 다음, 각각을 분류해서 이름을 붙여보면 도움이 된다.

4. 그리기 연습

1) **윤곽 그리기** : 종이에 아예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이어지는 한 선으로 그려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어느 순간에라도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움직이는 동물을 포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2) **빠르게 그리기** :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형태의 그리기이다.

3) **특징 잡아 그리기** : 특정한 표본에 대해 무척 상세한 것까지 표현한다. 어떤 대상을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기법이다.



5. 의문점을 조사하고 일기 쓰기

: 위에 나타난 여러가지 관찰방법, 그림방법을 활용하여 일기 쓰기를 시작한다.

특히 의문점은 각 계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시) 가을의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점

1)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는 초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초목이 씨앗을 맺었는가?

2) 단풍이 드는 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을 나뭇잎들의 변화를 알아보자. 나무와 관목의 씨앗, 과일, 열매들을 구별해보고 그려본다.

3) 가을 날씨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 나에게 이 계절을 상징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림으로 그려 본다



<한 주 전만해도 피어있지 않아서 무슨 꽃인지 알 수 없던 산국, 첫번째 모임의 참가자는 이꽃의 봉우리를 보고 노란 꽃이 필것 같다고 했다. 일주일 뒤 두번째 참가자는 활짝 핀 산국을 그렸다. 가을이라고 모든 꽃이 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산국의 개화시기는 10-11 월이고, 열매는 12 월에 맺는다고 한다. 자연 관찰일기를 통해 매주 그 자연을 바라보고 그림으로 기록하며 알아낼 수 있는 재미있는 지점이다.>